

# 철도로 즐기는 여행... '남도 기차둘레길' 상품 나왔다



## 광주시, 문체부·코레일 등과 협력 기차여행 4종 선별 목포·보성선 개통 기념 1박 2일 코스...28~35% 할인

광주시가 남부권 철도망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선보이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코레일, 부산시·울산시·전남도·경남도와 협력해 목포에서 보성까지 새롭게 연결된 '목포~보성선'을 기반으로 한 '남도 기차둘레길' 여행상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부산~보성·광주를 잇는 경

전선 노선을 중심으로 구성된 1박2일 일정으로, 남도의 자연경관과 광주의 문화예술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여행상품은 △보성·광주편 △부산·울산 편 △진주·하동편 △해남·장흥편 등 4개 코스로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 출발해 다음 날 출발지로 돌아오는 구조다. 진주·하동편은 5월 16일부터, 나머지 코스는 5월 23일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부산·울산편과 진주·하동편은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해 목포역을 경유하는 일정으로 구정대 광주·전남 지역 여행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들 상품은 토요일 오전 7시9분 광주송정역(목포역 오전 8시 2분)을 출발해, 일요일 오후 8시27분 광주송정역(목포역 오후 7시45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상품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식사와 숙박, 현지 교통이 포함된다. 부산 수운백반, 울산 복순도가 막걸리, 진주 냉면, 하동 재첩정식 등 각 지역 대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코스별 주요 방문지도 다채롭다. 부산·

울산편은 오륙도 스키와워크와 유엔기념공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숲 등을 둘러보며, 진주·하동편은 경상남도 수목원과 진주성, 쌍계사, 화개장터 등을 포함한다.

부산역 출발 보성·광주편은 전일빌딩 245,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913 송정역시장 등 광주 도심의 문화·역사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해남·장흥편은 땅끝전망대와 정남진 판백우드랜드, 장흥 교도소 영화세트장 등을 연계했다.

참여 신청은 코레일 누리집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차별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문체부, 코레일, 남부권 4개 시도와 협력해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이용료와 숙박료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여행상품은 시장 원가보다 28%~3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송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남도 기차둘레길은 여행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광주의 문화·예술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도망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광주를 남부권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송규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비수도권 DSR 완화 등 국힘, 지역·민생 공약 공개

국민의힘은 2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울라갈 시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으로, 벌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며 4대 공약을 소개했다.

4대 공약으로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라며 "수도권과 동일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다. 지방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한국판 IRA는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세제 지원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며 "한국판 IRA를 도입해 국내 제조업 생산 기반을 늘리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제16대 대한노인회 전남도연합회 창립식.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9일 무안 스키아레빙컨벤션서 열린 제16대 대한노인회 전남도연합회 창립식 행사에서 내빈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남도, 염전근로자 인권보호 위해 실태조사

### 11월까지 취업 경로·근로환경·임금지급 등 면접·심층조사

전남도는 29일 도청 감연수실에서 '염전근로자 근로 실태 조사' 착수보고회를 열어 염전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전남도와 시군 관련 부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경찰청, 전남도 인권위원회, 전남연구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염전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방향과 정책 보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실태조사는 염전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남연구원은 착수일부터 11월까지 염전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조사 주요 내용은 △염전근로자의 취업 경로 △생활 및 근로환경 △임금지급 실태 △인권침해 여부 △건강 상태 등이다.

전남도는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으로 근로자 처우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추진 일정, 조사 방법, 조사 항목 등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생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결과의 실효성은 높일 방침이다.

손영근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염전근로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광주도시공사 체육시설, 어린이날 무료 개방 수영장·실내빙상장·피겨 공연·안전 체험 등 다채

광주도시공사가 다음달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주요 체육시설 3곳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하고,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다.

29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무료 개방 대상 시설은 시립광주평동체육관 수영장, 시립광주무등체육관 수영장 등 3개소다.

공사는 단순한 장소 제공을 넘어 안전 교육과 문화 공연을 결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사회 보호 계층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소의 없이 축제를 즐기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립광주평동·무등체육관은 만6세에서 12세 이하 어린이와 동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부제로 수영장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무등체육관은 유아풀 1개, 전용 레인 1개, 평동체육관은 전용 레인을 2개 배치해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도록 배려했다.

또한 어린이 수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물론 회차별 정원을 30명으로 제한

해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한다. 3부제 시간과 예약 방법 등 상세 정보는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유선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실내빙상장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입장료와 스케이트화 대여료를 전액 면제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운영하며,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은 정빙 및 휴게시간을 갖는다. 현장에서는 지역 피겨 꿈나무들이 펼치는 화려한 피겨 공연과 캐릭터 인형들의 깜찍 스케이트 공연이 펼쳐진다.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선착순 무료 스케이트 강습도 진행해 처음 빙상장을 찾는 어린이들도 쉽게 기초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이벤트 풍선과 다과 제공 부스를 운영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머물고 싶은 미래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전용캠페인

#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광주경찰청 GPPS POLICE | 전남남도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보건공단 | GTCL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구소